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10. 26.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스마트시티과
담당	과장 전윤희, 스마트업육성팀장 서정목, 담당 유다해(032-453-7485)

“IFEZ, 스타트업들의 실증 메카로 뜬다”

‘IFEZ 실증 프로그램’에 힘입어 빠른 기술 상용화 원하는 스타트업들 주목

(주)에이블랩스 등 기업, 삼성바이오·센트럴파크 호수·인천스타트업파크 등에서 실증 한창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추진하는 실증 프로그램에 힘입어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이 실증 사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.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혁신 제품·서비스 검증을 통한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IFEZ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.
- 실증은 공간, 데이터, 인프라(플랫폼) 등 실증 자원을 활용, 스타트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스타트업들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두 기관이 추진 중인 ‘인천 스타트업파크 IFEZ 실증 프로그램’에 스타트업 5개사를 선정하고 실증에 필요한 자금 및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.
- 기업 당 5천만원의 지원을 받는 자금 지원형은 (주)에이블랩스와 (주)별따러가자 등 2개 기업이 선정됐다. 또 실증자원(공간)을 제공받는 스타트업은 (주)쉐코, (주)브이스페이스, (주)위드라이브 등 3개 기업이다.
- 지난 8월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(주)에이블랩스는 흡입·혼합

등 지능형 액체 핸들링 로봇 제조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. (주)에이블랩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(주)의 생산시설에서 실증을 진행하여, 성공시 제품 구매 계약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기존 장비 대비 50% 이상 가격을 낮춘 ‘외산장비의 국산화’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.

- 또 (주)별따러가자는 이륜차(오토바이)들의 운행 데이터를 수집해 안전운전 등을 판단하는 솔루션을 테스트한다. 이 기술은 라이더들의 안전운전 보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민간 보험사 등이 실증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.
- 이와 함께 (주)쉐코도 주목해볼만 하다. 이 회사는 해양 위 부유물을 걷어 바닷물을 정화하는 반잠수 구조체 로봇을 송도국제도시에서 시범 운영한다. (주)쉐코는 기존 정화 장치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부유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성능이 입증되면 오존을 활용한 정화기능까지 테스트할 계획이다.
- (주)브이스페이스는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전동 오토바이 5대와 배터리 3개를 동시에 충전·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편의성 등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.
- 아울러 인천 스타트업파크 지상의 각 층에서는 (주)위드라이브가 증강현실을 활용한 보행자 네비게이션 앱인 ‘워크인(Walkin)’의 성능을 검증한다. 한 차례 목적지 입력을 통해 휴대전화 전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 안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.
-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IFEZ가 실증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항, 항만 등을 갖추고 있고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. 또 인천경제청을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, 인천도시공사, 인천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스타트업들의 실증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 실증 프로그램도 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- 이월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“앞으로 공간, 인프라·플랫폼, 데이터, 전문

가 등의 실증자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